

2/4/18

설교 제목: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우리의 구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8:31-39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절관주** 시 118:6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절관주** 시 44:22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절관주** 엡 6:12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관주** 요 10:28

베트남 전쟁 중 있었던 일입니다.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은 베트남 군대가 후퇴를 하고 있던 중에 한 베트남 병사가 베트남공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미 안전 지대로 대피해 있던 베트남 군인 중 하나가 망원경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외마디를 소리를 지릅니다.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 그런데 저 병사는 제 친구입니다. 구출하러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중대장은 총에 맞은 친구를 구출하기 위하여 총알이 퍼부어지고 있는 곳을 다시 들어가겠다는 중대원을 말합니다.

"그건 아주 무모한 일이네. 망원경으로 보니 자네 친구는 벌써 죽었어. 지금 자네가 가도 소용이 없단 말일세. 지금 저기를 다시 들어갔다 자네도 죽을지 몰라"

그러나 중대원은 중대장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친구가 쓰러져 있는 그 곳을 쏠살같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대원은 총에 맞은 친구를 등에 업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구의 등에 업혀 있는 병사는 죽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중대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그것봐, 내가 뭐라고 했어. 왜 고집스럽게 쓸데없는 일을 하구 다녀. 자네까지 죽을 뻔 했잖아"

그 때에 병사가 말합니다.

"중대장님, 그 일은 결코 쓸데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제 등에 업혀 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난 네가 반드시 날 데릴러 올 것을 믿었어. 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찾아와 준 친구의 등에 업혀 죽음을 맞이한 이 병사는 죽으면서도 진정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탤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긔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친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찬송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에서 ‘이 일에 대하여’는 무슨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화시키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승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그 일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낸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까와하지 않으시고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은 못 내주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되어 천국의 영광을 받는 것을 막으려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우리에게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들이나 딸을 내어 줄 수 있으십니까?

전 못합니다.

전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도 내 아들을 죽게 내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이 세상 누구 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표를 보여 달라고 떼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없습니다.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계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계속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넘어뜨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승리하여 영광의 구원에 이를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영화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을 따르지 않고 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성화되게 하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인 영화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증된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해 주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